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오르비텍(046120)

상업/전문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김정훈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르비텍(046120)

원자력 관련 사업 및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4/09 기준)

대표자	윤호식/권동혁
설립일자	1991년 03월 05일
상장일자	2010년 06월 1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원자력 관련 사업, 비파괴 검사, 항공부품 제조
주요제품	비파괴 검사, 항공부품 제조

시세정보(2021/04/09 기준)

현재가(원)	8,73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077
발행주식수	24,968,430
52주 최고가(원)	9,950
52주 최저가(원)	2,430
외국인지분율	2.32%
주요주주	(주)성진홀딩스

■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 역량 집중

오르비텍은 약 15년간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및 원자력 관계시설 규제해제, 방사성물질 처리 및 처분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의 전문업체로 도약하였다. 또한, 1991년 설립 때부터 비파괴검사 및 분석 분야의 기술 노하우를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가동 전·중 검사, 방사선 계측 분야에도 기술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의 다수의 수행실적 경험과 비파괴검사 및 분석 분야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원자력 해체시장의 성장 전망

2017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여건, 대체 에너지 부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자력 발전은 현재도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2017년 고리 1호기, 2019년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본격적인 해체 시장 성장하고 있고,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2022년부터 준공되기 시작하면서 원자력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2009년 12월 한전 컨소시엄이 UAE의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오르비텍도 2016년 05월 한수원에서 발주한 BNPP 1,2,3,4호기 방사선관리용역(시운전공정) 수주에 성공하며 해외 진출에 성공하였다. 현재 UAE 원전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방사선 관리, 가동 중 검사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오르비텍의 추가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692	45.7	42	6.0	34	4.9	5.4	2.8	85.6	147	2,891	31.1	1.6
2019	749	8.3	41	5.5	10	1.3	1.5	0.8	84.2	42	2,918	84.5	1.2
2020	534	(28.8)	(72)	(13.4)	(211)	(39.4)	(36.5)	(18.6)	112.8	(887)	2,005	N/A	2.2

기업경쟁력

시기별 사업 다각화로 성장동력 확보

- 1991년 설립
 - 비파괴검사 사업개시
- 2006년 원자력 관련 사업 진출
 - 방사선 관리, 규제해제, 가동 전·중 검사, 피폭선량 측정
- 2013년 항공사업 진출
 -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

핵심경쟁력

-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
 - 1997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지속적인 R&D투자
 - 등록특허 약 40개
-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 다수의 수주실적 (2020년 09월 30일 기준)
 - 방사선관리용역 5건 수주용역 수행 중
 - 가동 중 검사용역 11건 수행 중

핵심기술 및 주요제품

핵심기술

- 원자력 관련 사업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건전성 유지기술
 -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부지복원 기술
- 비파괴검사 전문기술 보유
 - 소재 및 용접결합부 결함검출

주요 사업 분야

원자력 사업 부문	ISI 사업 부문	항공사업 부문
		

시장경쟁력

한수원 Q등급 보유

- 기술적 안전성을 갖추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
 - 오랜 기간 한수원과 거래하여 입지확보
 - 시장진입장벽 존재

원전 해체시장 확대

- 고리 1호, 월성 1호 영구정지
 - 본격적인 원전해체시장 성장기대
 -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자력시설 제염 및 해체기술 보유하여 수혜 예상

주요 변동사항

최대주주 변경

- (주)아스트 -> (주)성진홀딩스
 - 제 3자배정 유상증자 후 (주)성진홀딩스 지분율 15.03%로 최대주주 변경

신성장동력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
 - 2021년 3월말 기준 현금성 자산 290억 원

I. 기업 현황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의 안정적 성장, 오르비텍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 전문기업인 오르비텍은 1991년 설립부터 비파괴검사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계측 및 관리, 피복선량 측정 등 다수의 수주실적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 개요

오르비텍(이하 ‘동사’)은 1991년 03월 05일 비파괴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비파괴검사의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7년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안전 관리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신규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업에 진출하였고,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업체인 (주)아스트와 전략적 투자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함안에 제조공정을 준공하여 독자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였다. 2020년 12월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본사는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0, 8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48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 주요주주 및 관계회사 현황

2021년 01월 07일 동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기존 (주)아스트에서 (주)성진홀딩스가 15.03%의 지분을 확보하며 동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 외 (주)엔포인트인베스트먼트가 3.61%, 자사주 1.32%, 권동혁 대표이사 0.46%, 우리사주조합 0.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주요주주 현황(2021년 03월 31일 기준)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주주	지분율(%)
(주)성진홀딩스	15.03	권동혁	0.46
(주)엔포인트인베스트먼트	3.61	우리사주조합	0.44
자사주	1.32	기타	79.14

*출처: 오르비텍 IR 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대표이사 정보

동사는 기존 권동혁 대표이사 단독경영체제에서 윤호식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하였다. 윤호식 대표이사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오랜 기간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근무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있고, 국내 중견 제조업체 등에서 최고운영책임자를 역임한 이력이 있다.

권동혁 대표이사는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고 세영정보통신, 하이드로젠과워 팀장직을 거쳐 2011년 (주)아스트의 전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7년 동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 주력사업

오르비텍의 주력사업은 크게 원자력 사업부문, ISI 부문,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원자력 사업 부문은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 가공시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사선 관리,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복 선량평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ISI 부문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전·중 검사용역, 비파괴검사를 수행한다.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부문은 국내 항공업체와의 전략적 관계를 체결하여 항공기 꼬리 동체의 주요 구조물인 Bulkhead 조립체와 정밀기계가공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표 2. 사업부문

사업부문	내용
원자력 사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 핵연료 가공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 관계시설 규제해제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ISI 사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 중 검사 배관 기기 구조물 가동 중 검사 원자로 용기 가동 중 검사 원자로 상부 헤드 관통관 육안 검사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꼬리 동체 구조물(Bulkhead) 조립체 정밀기계가공부품

*출처: 오르비텍 IR 자료(2021)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 약 533.95억 원의 매출 중 원자력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47.2%인 251.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ISI 사업 부문이 17.0%인 90.89억 원, 항공 사업 부문이 24.8%인 132.52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기타 사업 부문은 종속회사(오비트 파트너스(주))의 금융투자 관련 사업 부문 매출이다.

표 3. 사업 부문별 매출액

(단위: 억 원, %)

부문	2020년		2019년		2018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원자력	251.81	47.2	188.80	25.2	225.53	32.6
ISI	90.89	17.0	141.03	18.8	114.26	16.5
항공	132.52	24.8	415.73	55.5	339.43	49.0
기타	58.73	11.0	3.88	0.5	12.91	1.9
매출총계	533.95	100	749.44	100	692.13	100

*출처: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조직 및 기술개발 현황

오르비텍은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를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09월 기준 11명의 인력이 연구소에 소속되어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인력 외 전문인력이 필요한 원자력 사업 부문과 ISI 사업 부문에도 전문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각 분야의 필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인 용역서비스가 가능하다.

2020년 기준 연구개발비용은 4.8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0.90%를 투자하였으며, 원자력 및 ISI 사업 부문 관련 다수의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표 4. 진행 중인 연구개발내용

연구 개발 과제	과제 내용	목적
원전 해체발생 유기착화제의 효율적 처리/처분을 위한 평가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착화합물에 의한 핵종이동 모델 분석 및 설계 유기착화합물 처분안전성평가를 위한 핵종이동모델 구축 유기착화합물 처분안전성 평가시스템 개발 및 검증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성능 시험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성능 적합성 평가 기준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성능 시험평가 계획 수립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단위모듈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부분 시스템 자체 성능시험 세부절차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통합시스템 자체 성능시험 세부절차 개발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근적외선 형광영상 및 전리방사선 섬광영상 측정용 일체형 영상 계측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광학영상 및 근적외선 형광영상 실시간 측정용 계측시스템 개발 전리방사선 섬광영상의 실시간 측정용 일체형 계측시스템 개발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출처: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원자력 시장은 신규원자로 상용화로 단기적 성장 전망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축소하겠지만, 건설 중인 신규원자로가 상용운전을 앞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단계적 시장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고리 1호,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로 인해 해체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원자력산업의 개요 및 분류

원자력산업은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방식인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원자력산업은 업종별로 크게 원자력발전사업체와, 원자력공급사업체로 나눌 수 있으며, 원자력발전사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를 말하며, 원자력공급사업체에는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국원자력연료(주)를 포함하는 원자력 관련 사업자와 원전건설 컨소시엄 업체와 함께 협력업체, 기자재 제작 등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원자력공급사업체는 설계업체, 건설업체, 제조업체, 무역업체, 서비스업체, 연구·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 원자력산업 분야의 업종별 분류

분류		내용	
원자력산업	원자력발전사업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원전 수출
	원자력공급사업체	설계업체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및 설계용역 업체
		건설업체	건축·토목업체 및 기계·전기 등의 설치공사 업체
		제조업체	원자력기자재 제조업체
		무역업체	원자력기기, 계측기류 등의 수출입 업체
		서비스업체	원전운영 및 정비, 기기수리, NDT, 기타 서비스업무 종사업체
		연구·공공기관	연구소(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안전규제 및 관련기관, 협·단체 등

*출처: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14),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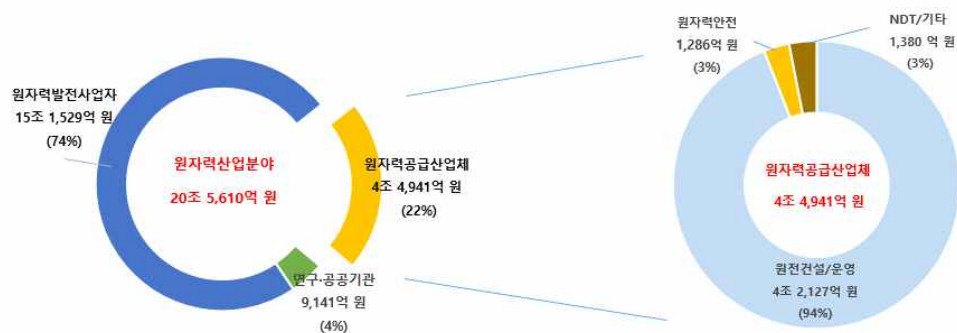
■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원자력산업 분야의 현황을 조사하고 원자력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 포털사이트인 KOSIS에 분야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공표일정은 조사 기간의 익년 4월이며,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 및 추이, 원자력 관련 종사자, 국내 대학 원자력 전공인력 및 원자력 관련학과 현황 및 추이, 사업체의 원자력 관련 수출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04월에 발간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총매출액은 20조 5,610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원자력발전사업체가 15조 1,529억 원으로 7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공급산업체가 4조 4,941억 원으로 21.9%, 연구 및 공공기관이 9,141억 원으로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2018년 원자력산업 분야 분야별 매출액 구성도

(단위: 억 원, %)



*출처: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원자력산업 분야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의 매출을 합제한 총매출액은 15조 4,356억 원이며, 이후 연평균 8.6% 증가하여 2016년에 27조 4,513억 원의 매출액합계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7년 23조 8,85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2016년 대비 약 12.9% 감소하였고, 2018년에도 2017년 대비 약 3조 3,245억 원이 줄어 13.9%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2018년 원자력발전사업체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3조 419억 원 감소하였으며, 원자력 공급산업체는 2,199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7%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연구 및 공공기관은 2017년 대비 626억 원 줄어든 6.4% 감소율을 보였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이를 보인 원자력산업은 전체 매출액의 약 74%의 비중을 가진 원자력발전사업체의 매출액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원자력발전사업체의 매출액 감소 요인은 이용률이 2017년 대비 5.3% 하락하였고, 원자력발전량 점유율이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액 감소요인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공공기관의 매출액감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개발비용 축소에 인한 수익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원자력산업 분야 매출액 추이(최근 10년간)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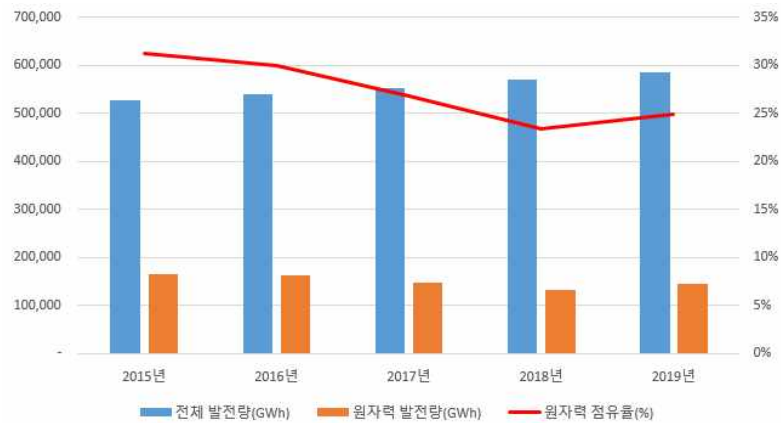
*출처: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원자력산업 전망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1년 03월 기준 국내 원자력 실시간 운영현황은 총 24기 중 19기가 운전 중에 있으며, 총 원자력 설비용량은 23,250MW로 파악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2019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9년 원자력 발전량은 145,910GWh를 기록하여 국내 전체 발전량인 585,301GWh 대비 약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점유율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9년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원자력 발전은 최근 5년간 국내 총발전량 대비 약 30%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며 국내 주력 발전원으로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3. 최근 5년간 발전량 및 원자력 점유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발전량(GWh)	528,100	540,441	553,530	570,647	585,301
원자력 발전량(GWh)	164,771	161,995	148,427	133,505	145,910
원자력 점유율(%)	31%	30%	27%	23%	25%

*출처: 2019년 한국전력통계(2020), 한국전력공사,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원자력산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력안전에 대해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및 석탄 설비 축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여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 4기가 상용화되면 상용운전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2017년 고리 1호기, 2019년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원전 해체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원자력산업에 속해있는 민간업체의 매출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기술분석

다수의 수주실적을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에 신뢰성 확보

오르비텍은 10년 이상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를 운영하며 다수의 수주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성공적인 운영실적을 통해 시장에서 신뢰성을 얻고 있다.

■ 보유기술 분야 - 원자력 관련 사업(방사선 관리, ISI),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

오르비텍의 주요 기술사업 분야는 국내·외 방사선 관리(원자력 관련 사업), ISI(In-Service Inspection: 가동 중 검사),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2020년 12월 결산기준 원자력산업 분야와, ISI 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에 약 64% 이상으로 동사의 주력 제품/서비스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분야인 원자력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과 ISI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4. 오르비텍 원자력 관련 산업



*출처: 오르비텍 IR 자료(2021)

■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동사는 원자력공급산업체에 속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리, 규제해제 및 피복방사선량 관측, 방사선 계측지 제조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방사선 관리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을 관리하는 용역서비스로 방사선방호, 방사선 관리구역 제염, 방사선 폐기물 관리, 피복관리, 원자력 품질 관리, 제염설비, 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 운영 등을 수행한다.

원자력발전소는 통상적으로 2개의 호기를 묶어 1개의 발전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리 용역의 경우 1개의 발전소를 한 업체가 수주하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공하는 열린원전운영정보에 따르면 2021년 03월 기준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총 24기로 파악되며, 이 중 19기가 운전 중이다.

그림 5.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출처: 한국수력원자력(주),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원자력 관련 사업 분야 경쟁력 확보

오르비텍은 한울의 5, 6호기, 서울 1, 2호기 등의 방사선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방사선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 총 9개로 파악되며 모두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협력업체로 Q등급(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업체 등록 심사등급)보유 업체들이다. 원전 운영과 관련된 방사선 관리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Q등급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는 비교적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용역 사업은 기술력에서 높은 안전성을 보유해야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동사는 2006년 원자력 방사선 관리용역 사업을 시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방사선 관리용역 품질등급 안전성 Q등급에 등록하였으며, 2007년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용역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시장에 진입하였다. 이후 약 10년 넘게 해당 산업을 영위하며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는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표 6. 방사선관리용역 실적(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원)

발주처	품목	수주일자	납기	수주금액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원전 계획예방정비 방사선관리용역	2019.09.25	2019.10.01 ~2021.09.30	11,993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발전소 5,6호기 방사선관리용역	2020.04.28	2020.05.01 ~2022.04.30	13,419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방사선관리용역	2020.06.26	2020.07.01 ~2022.06.31	13,896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방사선관리용역	2020.08.28	2020.09.01 ~2022.08.31	12,596
합계				51,904

*출처: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검사수행

오르비텍의 보유기술 중 하나인 ISI는 가동 중 검사로 원자력발전소 상업운전 착수 이후 발전소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비파괴검사의 일종이며, 국내 원자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발전소의 기기 및 구조물의 건전성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이다. 동사가 수행하고 있는 ISI 검사용역은 원자로냉각계통 기기 및 배관검사, 증기발생기 세관검사, 터빈발전기 기계설비검사, 배관 용접부, 지지구조물 등의 육안검사 등이 있다. 동사는 상기 검사를 위해 비파괴검사 방법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검사방법은 체적 검사방법으로 초음파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표 7. 오르비텍 ISI 검사 분야

검사	내용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 중 검사용역	증기발생기는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설비 중 하나로 마모, 침식, 부식, 그리고 응력으로 인해 점차 악화되어 와전류탐상검사로 전열관의 건전성여부 확인
배관기기 구조물 가동 중 검사용역	안전등급 설비에 해당하는 배관, 기기, 구조물의 건전성 여부를 적용기술기준에 따라 비파괴검사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탐상검사: 배관 및 압력용기 용접부 등 ▪ 지분탐상검사: 배관 및 지지구조물 용접부 등 ▪ 액체침투탐상검사: 배관 및 지지구조물 용접부 등 ▪ 육안검사: 배관 용접부, 지지구조물, 격납용기 등
원자로용기 가동 중 검사용역	원자력법에 의한 법정검사로써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여부를 비파괴검사를 통해 확인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육안검사 용역	원자로용기 상부 및 하부헤드 관통관과 모재에 대한 육안검사

*출처: 오르비텍 IR 자료(2021)

오르비텍은 1991년부터 비파괴검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전문인력확보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수의 정부투자기관과 현대중공업, LS산전 등의 대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수행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9년 08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1,2호기 S/G전열관 검사 용역계약 체결에 성공한 후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 중에 있다.

표 8. ISI 사업부문 실적(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원)

발주처	품목	계약체결	계약종료	수주금액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 5,6호기 배관, 기기 및 구조물 가동 중 검사용역	2019.12.27	2020.01.07. ~2021.11.01	3,825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3,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 중 검사용역	2020.07.09.	2020.07.10. ~2022.01.30	2,185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 1,2호기 6차 OH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검사	2020.11.23	2020.11.27.~ 2022.02.26.	3,359
합계				9,370

*출처: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6.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ong Point)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다수의 실적 보유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는 높은 기술 안전성이 요구되고 오랜 경험과 사업수행 실적이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오르비텍은 2007년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의 사업수주를 꾸준히 수행하였으며,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실적은 향후 방사선 안전관리 수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Opportunity Point) 글로벌 시장의 진출

2009년 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국내 원자력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이뤄냈다. 오르비텍은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한 BNPP 1,2,3,4호기 방사선관리용역(시운전 공정)을 수주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에 성공하였다. UAE 원전이 상업운전이 되면 방사선 안전관리 및 ISI 사업 부분의 추가적인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Weakness Point) 환경 친화적 안전관리기술 확보 필요

정부의 정책과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가 증가 되면서 해체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환경친화적인 안전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기술과 사용후핵연료 방사성 독성 및 부피 감소 등 처리기술의 개발, 환경과 격리 시키는 영구처분기술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 (Threat Point)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였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통해 국내 원전 해체 모델로 정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원자력산업 분야에 매출 비중이 높은 동사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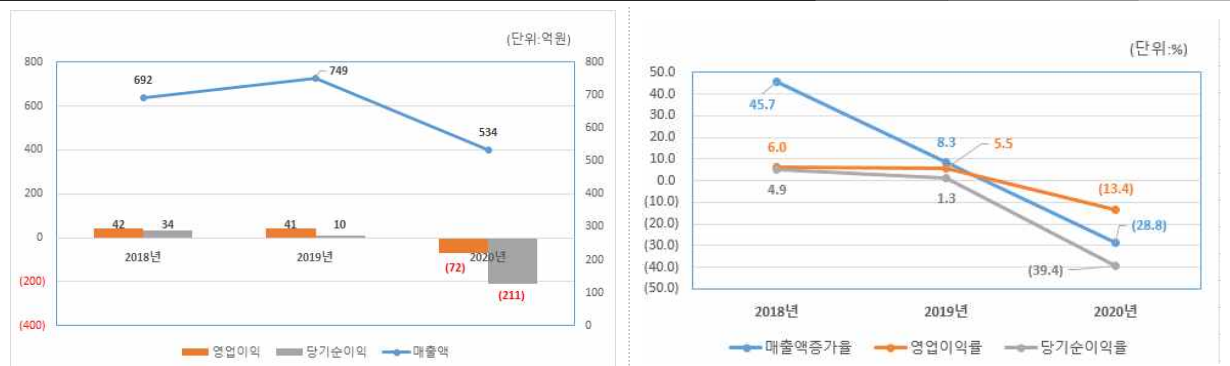
산업용 원자력 관련 사업 및 항공기 정밀 부품 제조 전문기업

동사는 1991년 설립부터 비파괴검사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계측 및 관리, 피복선량 측정 등 다수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방사선 관리용역 및 규제해제 사업이 총 매출의 47.2%를 차지

동사는 방사선 관리용역 및 규제해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전,중 검사용역/비파괴검사 기술용역, 항공기 부품 생산 및 판매,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방사선 관리용역 및 규제해제 매출이 252억 원(총 매출의 47.2%), 원자력 발전소 가동전,중 검사용역/비파괴검사 기술용역 매출이 91억 원(총 매출의 17.0%), 항공기 부품 생산 및 판매 매출이 132억 원(총 매출의 24.8%), 기타 매출이 59억 원(총 매출의 11.0%)으로 방사선 관리용역 및 규제해제 매출이 총 매출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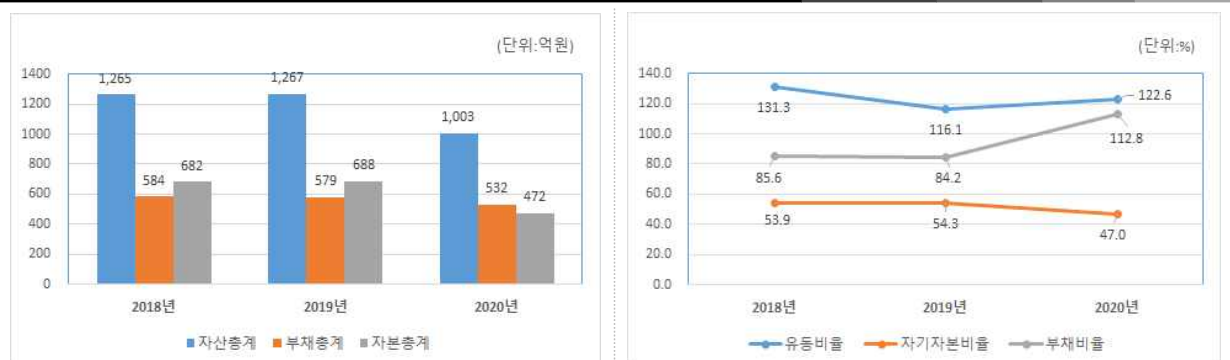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그림 8.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 ISI 사업 및 항공사업 부문 수주 축소로 매출 감소

동사의 사업 부문은 원자력 사업본부, ISI 사업본부, 항공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사업본부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 규제해제, 방사선 계측사업 및 관련제품을 생산/판매하고, ISI 사업본부는 원자력 발전설비 및 비파괴기술 검사 등을 시행, 항공 사업본부는 모회사인 아스트와 연계하여 사업을 영위 중에 있다. 2020년 결산기준 매출액은 ISI 사업 및 항공사업 매출 부진으로 2020년 결산기준 매출액은 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8%가 감소하였다.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692억 원(+45.7% YoY), 2019년 749억 원(+8.3% YoY), 2020년 534억 원(-28.8% YoY)을 기록하는 등 2020년에는 매출 감소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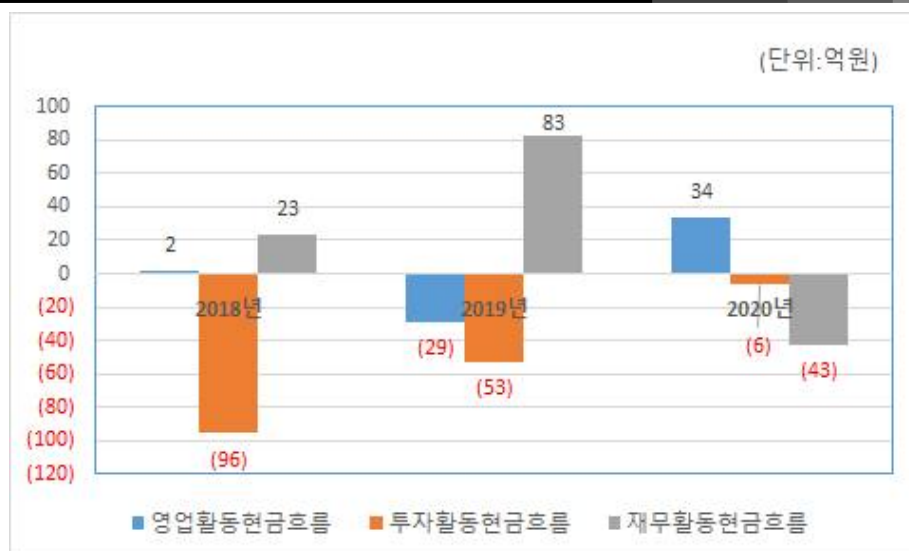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19년 88.7%, 2020년 101.7%로 원가율이 증가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9년 5.5%, 2020년 -13.4%를 기록하며 영업수익성이 적자전환 하였고, 산업평균 대비 미흡한 영업수익성을 나타냈다.

또한, 매출액순이익률은 2019년 1.3%, 2020년 -38.4%를 기록하여,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저하되었고, 산업평균 대비 미흡한 수준을 나타냈다.

■ 현금유동성 확보

2020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으로 정(+)의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34억 원을 나타내고 있고, 매출채권 일부 회수 및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기말 현금성 자산 109억 원을 보유하는 등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9.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원자력사업 부문 역량 강화로 수익성 유지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사업부문의 부진으로 기존 원자력 사업 부문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해체시장의 성장과, 해외진출로 인한 수익창출이 기대되고 있어 기존사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대주주 변경

오르비텍은 2021년 01월 기존 최대주주인 (주)아스트에서 (주)성진홀딩스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성진홀딩스는 2019년 08월 설립한 기업자문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15.03%의 지분을 차지하며 동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 기존사업역량 강화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자, 동사의 항공사업 부문의 매출도 감소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3년 항공산업에 진출하게 된 동사는 (주)아스트와 전략적 투자 관계를 맺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엄격하기로 유명한 AS9100인증을 획득하며 세계 항공우주산업체와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항공사업 부문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18년 339.43억 원을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415.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는 등 동사의 주력사업으로 자리잡는 듯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산업 전반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2020년 12월 말 기준 132.52억 원의 매출에 그치는 등 부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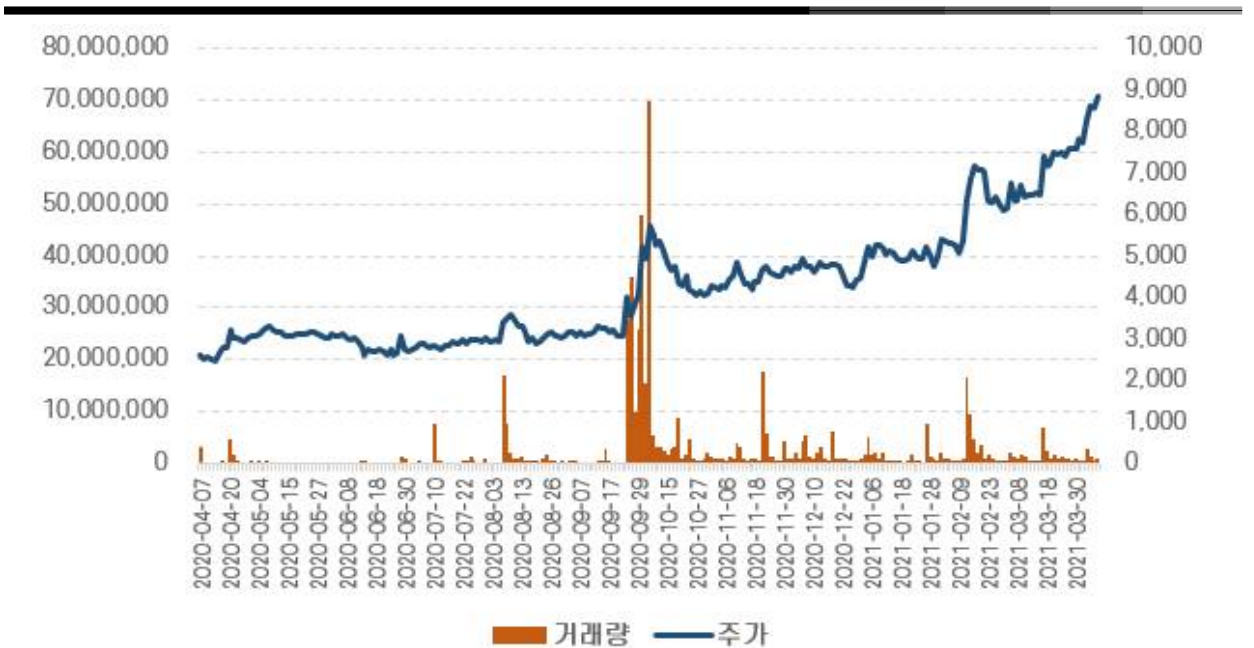
동사는 기존사업인 원자력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와 ISI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사의 자회사인 오비트파트너스(주)와 현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성진홀딩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일환으로 탈원전으로 인한 장기적인 시장은 축소되었지만,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가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단기적인 시장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22년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에 착수될 것이며, 해체과정은 영구정지 전 준비 기간 2년, 안전관리 및 사용 후 핵연료 반출에 최소 5년 이상, 제염/철거작업에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폐로가 되기까지 총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동사가 원전해체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기존 주력사업이었던 원자력사업 부문 및 ISI 사업 부문의 먹거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4.)